

# 완주군 지역안전지수 '최고'

### 전북서 가장 안전... 자살 부문 '최우수' · 교통·감염병·화재 '우수'

완주군의 안전도가 전북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최근 발표한 결과, 7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최우수(1등급)' 및 '우수(2등급)'로 평가받았다.

군은 자살 부문에서는 최우수를, 교통과 감염병, 화재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특히 완주군은 '하위'를 의미하는 4~5등급 하나 없이, 7개 전 분야에서 3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안전

수준이 전국에서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군의 경우 지난해에 범죄 분야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교통사고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범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살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1등급씩 상승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 기준 완주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명보다 21명(33%)감소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군민안전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문화 교육,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운영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과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및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식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 완전한 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나영민 무주경찰서장 취임

제71대 무주경찰서장에 나영민 총경(48세·사진)이 15일 취임했다.



이날 나영민 서장은 취임사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무주군의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치안책임자로서 직원들이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무주경찰의 치안역량을 모아 무주군에 적합한 최고의 지역치안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나 서장은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무주 치안에 한 점의 오차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치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태생인 나 서장은 서울 재현고등학교, 경찰대(8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을 거쳤으며 경찰청 수사연구관실 수사연구계장 등 요직에서 근무한 후 올 초 총경으로 승진했다. 직전 법무부 과경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3일 무주경찰서장으로 발령 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준호 장수경찰서장 취임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15일 오전 경찰서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의경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0대 전준호 장수경찰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장수를 남산에 위치한 충훈당 참배 후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삼철의 고장인 장수군의 치안을 책임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준호 서장은 "경찰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 노약자와 부녀자 상대범죄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현장치안의 확립과 주민친화적 현장활동 전개를 통해 주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장수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사건 및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에 대처하는 관리능력 향상을 강조

했으며,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제70대 장수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전준호 서장은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교를 2기로 졸업했으며, 경남고성경찰서장과 광주 동부경찰서장,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쳐 전남지방청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정보과장을 역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 컨설팅 실시

무주군은 지난 11월 10일부터 관내, 숙박업소와 모범·향토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친절 컨설팅을 15일 마쳤다

무주를 방문하는 선수와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표정, 인사, 용모, 복장, 실내의 환경 및 청결상태, 접객용어 사용여부 등 친절과 청결교육, 외국어 응대교육 등이 실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 무주군 체육인의 밤 성료



2016년 무주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15일 저녁 6시 20분부터 무주에 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무주군체육회장)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각 종목별 임원, 동호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다과회 등에 함께 했다.

호희 강기화 씨를 비롯한 17명의 동호인들이 공로패를, 무주농협 광동영 조합장과 무주읍체육회 정을운 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우리 군을 스

상생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홍삼 1번지, 진안군의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투어패스사업은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더! 더! 더!) 여행하고 싶은 정복을 만들고자 전라북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 장의 카드로 14개 시군의 자유이용시설을 이용하고 특별한일 가맹점 혜택을 체험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전북투어패스 관광안내소 정비 완료

### 마이산 남부·북부 위치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 전북투어패스 사업에 발맞춰 마이산 남부와 북부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정비 작업을 마쳤다.

이번 정비는 토탈관광을 위한 LED 입간판 정비와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전북투어패스 관광객 맞이기를 위한

관광종사원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산 북부 관광안내소 입구에 '장애인 도운요청벨'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으로 계단 이용이 힘든 관광객이 벨을 누르면 관광안내소 종사원이 관광객을 있는 곳까지 응대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내 시·군 지역관광이

상생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홍삼 1번지, 진안군의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투어패스사업은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더! 더! 더!) 여행하고 싶은 정복을 만들고자 전라북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 장의 카드로 14개 시군의 자유이용시설을 이용하고 특별한일 가맹점 혜택을 체험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정책사업과  
063-430-2951

# 특별리포트

## 완주군, 마을하수도 정비 2개 지구 신규사업 확정

완주군은 운주 원고당지구와 구이 염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시계획 용역은 2017년 2월 착수해 11월 말까지 지형현황측량·토질조사·배수설비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공중위생 향상 및 급강 유역상류지역과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운주 원고당지구는 총 사업비 69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자해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로 6.1km와 소규모하수처리장(180㎡/일), 배수설비 91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구이 염압지구는 총 사업비 95억원(국비 67억원, 지방비 28억원)을 투자해 구이면 계곡리, 백여리 일원에 하수관로 9.8km와 소규모하수처리장(130㎡/일), 배수설비 288기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오는 2019년 준공목표다. 이에 군은 조기발주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 위해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오는 2018년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2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당지역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하수관을 통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됨으로써, 8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해 소장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존 정화조 유지관리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그동안 악취와 해충 서식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2개 지구, 800여명이 수해를 입게 되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15일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16년실적)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해 실적향상을 위한 합동평가 부진지표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보고회에서는 11월말기준으로 9개분야 96개 정량 세부지표중 부진지표에 대한 추진현황과 부진사유, 급후 대책을 보고해 12월말까지 지표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섭 부군수는 "대책 보고회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표별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올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진한 지표는 내년도에 군의 현실에 맞도록 지표개선(정성대책)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반영해 정기적인 안목의 지표관리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진안군 부귀면 모래재로에 구름재 박병순 생가가 복원되어 15일 '구름재 박병순 생가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진안이 배출한 시조문학의 거목 '구름재 박병순'을 기념하기 위한 생가복원사업은 진안문화콘텐츠개발 및 진안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름재 박병순 선생은 진안 부귀면 세동리 적내 출신으로, 가람 이병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국시조문학의 부흥과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한글보급운동에 평생을 몸 바쳐왔다.

생가는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124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되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생가복원 사업으로 박병순 선생의 얼과 혼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진안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재조명돼 지역민의 애郷심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